

2024. 3. 25.(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2133-2260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정류소관리팀장

김도이

2133-2295

### 명동입구 정류소, 보행밀집도 절반 이상 감소 등 개선대책 '효과'

- 서울시, 명동입구·광고 정류소 '교통 혼잡 해소대책' 2달여 간 시행 결과분석 내놔
- 노선 분산 후, 명동경유 광역노선 운행시간 평균 5분·정류소 보행밀도 56% 감소
- '정류소 줄서기' 전문가 자문·시민의견 수렴... 3월 중 광고정류소 줄서기 노면표시
- 시 "혼잡완화 확인됨에 따라 지속 관리, 대광위·경기도 전향적 대책 마련도 촉구"

- 서울시가 지난 1월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교통 혼잡 해소대책에 들어간 뒤로 광역버스 운행시간이 최대 13분 줄고, 퇴근시간대 정류소 밀집도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보도에 느끼는 서비스 품질을 등급화하여 관리하는 '보행자 서비스 수준'도 두 단계 오른 B등급으로 개선됐다.
- 서울시는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운행노선 분산 등 교통 대책을 추진한 결과, 혼잡도 완화 및 시민 만족도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시는 명동 일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명동입구 정류소에 밀집된 노선 일부(8개 노선)를 인근 정류소로 분산하고 ▲퇴근시간대

명동입구·광고 정류소에 모범운전자를 배치(각 2명)했으며 ▲노선 분산 완료 시점까지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일부 유예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분석 결과, 노선 분산 후 명동경유 노선 운행시간 5분·보행밀도 56% 감소 효과>

□ 개선대책 시행 이후 명동 일대를 경유하는 29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16~18시 차고지 출발기준으로 노선 분산 전·후(2.19.~2.22./ 2.26.~2.29.) 전체 운행시간이 평균 5분 가량 감소하는 등 노선 분산에 따른 교통흐름 개선효과가 있었다.

정류소명	운행방향	운행시간 변동	정류소명	운행방향	운행시간 변동
계		-5.3분			
명동입구 (02253)	광주	-3분	명동입구B (02143)	화성(2개 평균)	-3.5분
	성남(7개 평균)	-10.7분		광고(02136)	수원(4개 평균)
	양주	-9분	용인		-1분
	용인(9개 평균)	-4.8분	롯데영플라자 (02142)	성남	-13분
	하남	9분			
	화성(2개 평균)	-2분			

<해당 노선 평균 운행시간 비교>

○ 정체구간 초입 ‘롯데영플라자 정류소’를 시작으로 명동입구B(신설), 명동입구, 광고(신설) 정류장으로 노선이 분산되면서 교통흐름이 연이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류장 분산을 시행한 대부분 노선의 평균 운행시간이 감소했고, 성남 방향 노선은 최대 13분 감소 등 전반적인 운행시간 감소 및 혼잡 완화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또한 명동입구 정류소 보행밀도 조사 결과, 퇴근시간대 보도상 점유면적 대비 밀집도의 경우 노선 분산 전에 비해 제곱미터당 약 0.43

명이 감소(0.76인/m<sup>2</sup>→ 0.33인/m<sup>2</sup>)해 대책 시행 이후 약 56% 줄었으며 정류소 대기인원도 35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보행자 서비스 수준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 ▶ 분산 전('24.1.16.) : 대기인원 350명, 보행밀도 0.76인/m<sup>2</sup>, 서비스 수준 D등급
- ▶ 분산 후('24.3.19.) : 대기인원 150명, 보행밀도 0.33인/m<sup>2</sup>, 서비스 수준 B등급



시행 전('24.1.16. 18:30)



대책 시행 후('24.3.19. 18:30)

〈개선대책 시행 전·후〉

<‘정류소 줄서기’ 전문가 자문·시민 의견 수렴… 3월 중 광고 정류소 줄서기 노면표시>

- 서울시는 명동입구·광고 정류소의 보도 상 질서를 확립하고 승객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류소 줄서기 운영방식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3월 중 대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명동입구 정류소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72%)이 현재와 같은 ‘줄서기 표지판’ 형태의 대기방식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응답, 현행 7개 줄서기 표지판을 균등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이용추이를 감안하여 노선 방향별로 그룹화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광고 정류소는 승객 60%가 줄서기 표지판이 아닌 ‘노면 표시’를 설치해 줄 것을 원한다고 응답, 보도가 협소해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점

을 고려하여 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은 3개 노선(M5107·M5121·8800)에 대해 줄서기 라인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일평균 승차건 : M5107(1025명), M5121(460명), 8800(482명), 5007(179명), M5115(63명)



〈대기방식 시민 의견수렴 결과〉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광역 버스 정류소 혼잡도 개선에 나선 결과,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교통 혼잡 완화효과가 나타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다만 도로 용량 한계와 통행차량수로 인한 한계도 예상되는 만큼, 누적된 수도권 승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인 대광위·경기도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도 조속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1〉

# 명동입구 정류소 및 노선 조정시행 내용

